

2024. 2. 29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대기정책과장	사창훈	02-2133-3630
차량공해저감팀장	유지현	02-2133-4415
관련 누리집 (메뉴)	www.mecar.or.kr www.seoul.go.kr	

서울시 올해 경유차 6,700대 '조기폐차' 지원...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

- 조기폐차 보조금 '저소득층 최우선 지원 기준' 마련, 취약계층 생계 보호·두터운 지원
- 내년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,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지원
-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, 저소득층·소상공인 등 생계형차량은 100만원 더
- 고른 지원금 지급 위해 연 3회(3,6,8월) 접수, 1차 접수 3월 4일(월) 시작

- 서울시가 올해도 총 6,700대의 경유차,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.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.
-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(3.6.8월)분리·진행한다.

□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▲4등급 경유차 6,000대 ▲5등급 경유차 500대 ▲도로용 3종·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,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서울의 ‘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’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%로 가장 높았다. 실제로 시에 등록된 4~5등급 차량은 8%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%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.

※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(서울연구원, '22): 자동차 28%, 난방 27%, 비산먼지 24% 등

□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(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)를 대상에 추가,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.

○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·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, 4등급 경유차(자동차 보험가입 기준)는 약 10만 8,000대에서 9만 1,000 대로 약 16%, 5등급 경유차(자동차 보험가입 기준)도 약 7,000대에서 5,000대로 약 29% 줄었다.

□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. ‘4등급’ 차량 중 3.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, 3.5톤 이상은 7,500cc 초과 시 최대 7,800만원까지 지원한다. ‘5등급’ 및 ‘건설기계’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.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.

※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: 수급자증명서(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’ 또는 ‘차상위계층확인서’)

소상공인: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<http://sminfo.mss.go.kr/> 발급)

- 신청방식도 개선한다.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.
-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. 제1차는 3.4.(월)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, 6월과 8월 제2·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,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- 제2·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,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, 어린이 통학차량,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.

< 제2·3차 공고시 선정 우선순위 >

우선순위	경유차	건설기계
1	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소유 차량	
2	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(5등급 해당)	*소상공인 소유 차량(대표자 소유 포함) * 「소상공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3	택배차량	그 외 조기 폐차 대상 건설기계
4	어린이 통학차량	-
5	*소상공인 소유 차량(대표자 소유 포함) * 「소상공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	-
6	그 외 조기 폐차 대상차량	-

※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나 경합 시,

- 1)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(자동차-건설기계 등록원부 기준)
- 2) 제작 일자가 동일한 경우, 다음 차수 예산에서 당겨서 지급(단, 제3차 신청 건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)

-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·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사전(행정)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.
-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. 1차 신청은 3월 4일(월)부터이며, 4·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www.mecar.or.kr)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,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.
 - 우편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 - 이메일 주소 : 1577-7121@aea.or.kr
-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(www.seoul.go.kr) 고시·공고에 게시된 ‘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(제1차)’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(1577-7121) 또는 다산콜센터(02-120)에서 가능하다.
-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”며 “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〈붙임〉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부.

< 자동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>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	상한액 (기본+추가)		지원율		
			5등급	4등급	기본(폐차)	추가 지원(차량구매)	
4·5등급 자동차	①총중량 3.5톤 미만	승용(5인승 이하)	300	800	50%	50%	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
		그 외	300	800	70%	30%	
	②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40	720	100%	200%(신차) 100%(중고차)	
	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750	1,600			
	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1,100	2,400			
		7,500cc 초과	3,000	7,800			
	③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	4,000	10,000				

< 지게차, 굴착기 >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상한액 (기본+추가)	지원율	
			기본(폐차)	추가 지원(차량구매)
굴착기	16톤 미만	1,650	100%	200%(신차)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
	16톤 이상 33톤 미만	2,700		
	33톤 이상	7,900		
지게차	9톤 미만	1,050	100%	200%(신차)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
	9톤 이상 18톤 미만	3,400		
	18톤 이상	12,000		